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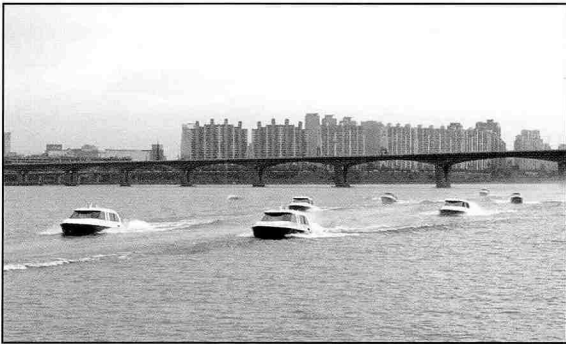


## “한강수상콜택시”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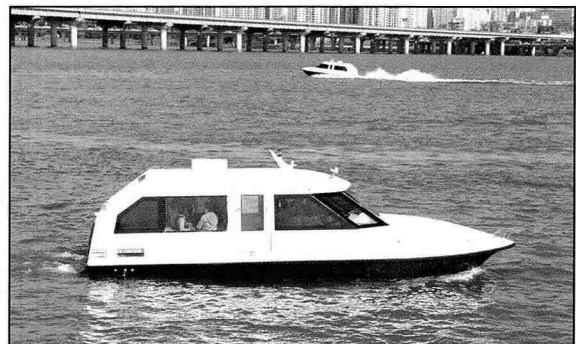
공단은 지난 10월 11일 한강에서 운항을 시작한 수상콜택시 10척에 대하여 약 5개월간에 걸쳐 건조 착수에서부터 시운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선박검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업계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운항을 시작한 수상콜택시는 FRP재질로 건조된 도선이며, 총 10척중 4.81톤급 쌍동선(최고속도 70km/h)이 5척이고, 3.06톤급 단동선(최고속도 63km/h)이 5척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은 여객 7명 · 선원 1명 총 8명이며, 서울특별시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잠실, 뚝섬, 서울숲, 여의도 등 한강 내 11개 나루터 간을 운항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수상콜택시에 대한 선박검사시 선박안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선체 · 기관 등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검사는 물론, 구명 · 소화장비 · 채광장치 · Guard rail 등 안전설비에 대한 확인과 동 선박들이 고속선으로 활주형선인 점을 감안해 건조중량에 유의하였으며 특히, 기관실과 선박의 양현 및 선미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조타대에 설치하여 추가적인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등 승객들을 보다 안전하고 안락하게 운송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수상콜택시 시운전 모습, 10월 11일 여의나루



▲ 수상콜택시 시민 무료시승 행사, 10월 11일 여의나루

## 『고객만족서비스매뉴얼』 개정 발간



지난 10월 24일 고객에게 보다 향상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만족서비스매뉴얼』을 개정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에는 고객서비스현장, 고객접점별 서비스 응대요령, 불만 고객 응대 및 회복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단의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통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대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지난 10월 25일 본부에서 20여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혁신관계자와 공단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2007년도 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공단에서 개최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혁신 사업의 하나로 혁신우수사례에 대한 상호학습과 공유를 통하여 혁신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혁신마인드를 제고할 목적으로 14개 소속 공공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의 2007년도 혁신우수사례인 다양한 고객접점 서비스 강화로 고객과 한마음을 이룬 군산지부의 “선박안전 지킴이, 고객이 OK할 때까지”와 현장감 있는 교육동영상을 자체 제작한 인력개발팀의 “선박검사 A에서 Z까지, 생생교재가 함께 해요” 사례 발표에 이어 느낌기획원 강성모 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변화관리 이해와 자기혁신”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가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성규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공단의 혁신활동 추진과정에 있었던 장애 극복과정을 혁신담당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하는 혁신으로 나아가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윤학배 청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공단의 최근 경영실적, 혁신평가 및 고객만족도 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까지의 공단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및 확산을 통하여 동반성장의 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독려했다.



▲ “선박안전 지킴이, 고객이 OK할 때까지”, 군산지부



▲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종합서비스 확대 실시키로...

- 2008. 10. 1일부터 5톤미만 낚시어선 면허 소지 의무화 -



▲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특강, 마산지부

지난 10월 8일 전국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확대전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5톤미만 낚시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종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선박직원법(법률제7480호, 2005. 3. 31)개정으로 다가오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 의무 선박이 5톤미만 낚시어선 및 유도선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저학력·고령자가 대부분

인 5톤미만 낚시어선 소유 영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면허취득 시험에 대비한 무료특강과 함께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자에 대한 면허취득교육을 어업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에서 실시하는 종합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어업인들의 면허취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04년부터 대고객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30톤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부에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특강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공단 강원지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가 의무화되는 5톤미만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면허취득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638명의 어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간절감은 물론 1인당 약 100만원의 경비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 어업인들의 큰 호응과 함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8월 31일 강원도 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어 지난 확대전략회의를 통해 강원지부의 사례를 전국지부로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한편, 2008년 10월 1일 이전까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5톤미만 낚시어선은 현재 6,800여척에 이르며, 그 동안의 면허취득 무료특강 실적을 바탕으로 교육교재를 더욱 알차게 제작하여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면허취득에 따른 해당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자체·수협 등과 합동으로 관계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연수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 『레이저보트 품질관리 기술워크숍』 개최



▲ 『레이저보트 품질관리 기술워크숍』 개최

지난 10월 5일, 6일 양일간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레이저보트 생산기술자, 설계자, 검사원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보트 품질관리 기술워크숍』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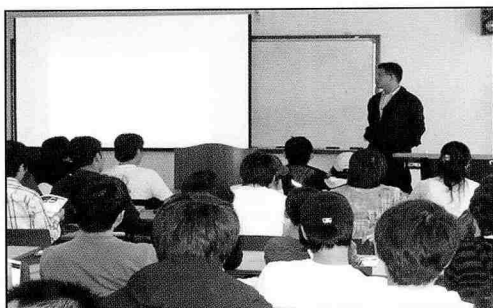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해양레이저 활성화를 위한 레이저보트산업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대불대학교 박근용교수의 『레이저선박의 인테리어 생산 공정 프로세서』, 우리공단의 『레이저장비에 대한 국제 표준의 변화동향』, 『선질에 따른 레이저보트 구조설계』,

광동FRP조선소의 『쌍동요트 상그릴라의 건조공정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레이저보트 품질관리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현장 기술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레이저보트의 현장적용기술에 대한 이해 및 레이저보트의 기술동향 파악 등 레이저보트 품질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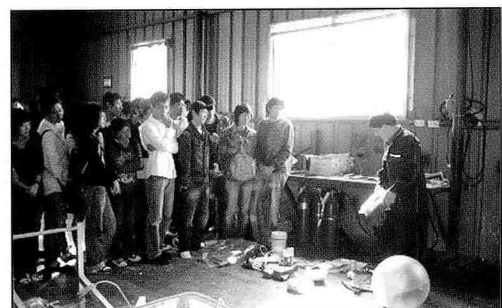
## 미래고객을 위한 학부생 현장교육 실시

목포지부(지부장 김영천)는 지난 10월 9일 목포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전공 3학년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공단홍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의 홍보를 통하여 재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고, 구멍뗂목 개방 및 투하·의장품 설명·각종 신호탄 발사·각종 휴대식 소화기 시험·고정식 소화장치·각종 이동식 소방설비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가학생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단과 국립목포대학교간의 산학협력 및 유대강화 증진에 기여하였다.



▲ 공단홍보 및 안전교육, 서무천 검사원

공단 목포지부는 목포대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공단 홍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 현장 교육 실시, 항도선박설비사